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 스킨제니(Skorzeny)

특공대의 전략적 운용과 교훈

文 英 一

(군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1. 서 언
2. 특공전의 이론과 개념
3. 스킨제니 특공대의 국가안보전략적 운용
4. 스킨제니 특공대의 군사전략적 운용
5. 특공대의 전략적 운용 분석과 교훈
6. 결 언

1. 서 언

1953년 5월 29일, 미국은 당시 미 국무장관 덜레스와 국방장관 월슨을 통하여 한국전쟁중인 유엔군사령관 클라크에게 소위 '에버레디계획(The Plan Ever Ready)'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여차하면 시행해도 좋다는 명령까지 하달한 바 있었다.¹⁾

1) 문영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사상사」, 서울, 을지서적, 1999. 5, 314쪽.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3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휴전협정 체결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오로지 이 기회에 북진통일을 간절히 바라면서 휴전협정 성립을 그 대로 받아드리려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미국정부 당국은 그 같은 한국정책이 미국의 전략정책에 방해가 될 경우,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다”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고, 한국에 친미정권을 수립하여 기어이 휴전조약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지 군사령관이던 클라크 장군이 적극 나서 이승만 대통령과 연속적인 면담과 설득으로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이 계획은 실시되지 않은 채 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차하여 그 계획이 실행되었더라면, 그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미군 특공대를 전략적으로 운용한 첫 사례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 달리 기록되었을 것은 물론 한·미 간의 역사적 갈등은 또 한 차례의 변화를 겪을 뻔했다. 이러한 사례(事例)는 중앙집권적이고 전제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보기드문 것이나 세계 역사를 통해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전략(戰略-大戰略-國家安保戰略)차원의 문제해결에 동원된 특공작전(特攻作戰)이라는 군사작전에 대해, 특공대의 전략적 운용이라는 주제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6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언에 이어 제2장 특공전의 개념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또 일반상식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특공전과 관계되는 이론적 내용을 배경으로 특공전략과 전술에 대해 살피면서 특공대의 운용에 대해 기본 개념을 제시했다. 제3·4장에서는 특공대의 운용 사례를 연구했으며, 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에게 악명을 날렸던 스킨제니(Skorzeny) 특공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독일군 특공대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내용이 연구되었다. 그리고 제5·6장에서는 특공대 운용이 국가와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교훈적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전사(戰史) 연구분야에서도 특공대의 전략적 운용은 비교적 드문 과제에 속한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해 독자들이 좀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 특공전의 이론과 개념

(1) 게릴라전(遊擊戰 : Guerrilla Warfare)

게릴라(전)는 흔히 빨치산(Partisan)이라고도 하는데 어원이 스페인이며, 우리말로로는 유격(전)이라고도 한다. 유럽의 나폴레옹 전쟁 당시 스페인 국민들은 영국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군에 저항하고 있었다. 1808년 이후 스페인 국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나뵘대로의 조직적인 저항을 계속한 결과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스페인은 해방되었다.

이때 이 저항활동을 처음으로 ‘게릴라(Guerrilla)’라고 불렀다. 이 원어 중에 ‘Guerr’란 말은 전쟁이란 뜻이고, ‘illa’란 소규모라는 뜻으로, 합성하면 ‘소규모 전쟁’이란 의미가 된다.²⁾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유격전(게릴라전)과 특공전을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군 야전교범 31-21(특수부대작전)에 의하면 게릴라전은 ‘적의 점령(장악)지 또는 적성지대내에서 비정규(非正規 : Irregular)적인 다수의 지방주민들에 의하여 실시되는 군사 및 비군사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게릴라전이란 전쟁 중의 적지역내 또는 피점령지 중의 자기방어지역

2) Robert P. Gwinn, ed.,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5,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Chicago, U.S.A., p. 544.

에서 무장된 주민이 저항하는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전투중인 정규군이 적 후방에서 작전활동 하는 것도 포함된다. 게릴라전에서는 단순한 무장전술활동은 물론 정치적인 선동, 조직, 심지어는 정치활동 자체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리고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전투원 즉 게릴라는 반드시 토착민이거나 다수의 토착민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군번을 가진 정규군인이 계획적으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실시할 수도 있다. 게릴라란 원래 게릴라전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근대에 와서 흔히 사용되면서부터는 그 의미가 변하여 지금은 아예 종사요원 또는 그 집단을 두루 지칭하기도 한다.³⁾

(2) 특공전(特攻戰 : K-Commando, Ranger)

특별히 훈련된 군부대가 특정목표의 정찰, 습격, 그리고 특정인물이나 집단의 암살, 납치, 구출 등을 목적으로 자국내(또는 자국 영향하)의 기지로부터 적지역내에 근거리 또는 전장종심 깊이 침투하여 지체시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행하여지는 특별공격작전을 말한다.⁴⁾

이러한 특공전을 전개하는 부대를 영국 등 유럽에서는 ‘코만도(K-Commando)’라 부르고 미국에서는 통상 ‘레인저(Ranger)’라 하고 있다. 한문을 사용하는 동아시아국가들에서는 특공대라 하고 일본에서는 ‘정신대(挺身隊)’라 부르기도 한다.

1) 코만도(K-Commando)

하나의 군 대단위부대로서 특수한 보병부대에 명명된다. 이 부대는 통상

3) 특전사령부, 『特攻戰』, 육군 제6지구 인쇄소, 1977. 1, 3-4쪽.

4) 특전사령부, 『특공전』, 34-35쪽.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훈련된 요원들로 구성되며 백병전에서 ‘치고 빠지는 전술(Hit & Run)’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충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이들 구성원 개인도 흔히 코만도라 부르고 있다. 1800년대 초 남아프리카 보어전쟁 당시 현지인들의 약탈에 대비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정규군부대들에 처음으로 붙여진 호칭이었다.⁵⁾

한마디로 말하면 ‘군번을 가진 요원들이 적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군사 일반적인 용어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주로 유럽 계열국가 군대에서 즐겨 사용되고 있다.

2) 레인저(Ranger)

특공대를 미국에서는 주로 ‘레인저(부대)’로 부르고 있다. ‘레인저’라는 단어의 뜻은 “송곳 끝 또는 앞서 개척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미국 보병학교 레인저과정에서의 레인저라 함은 레인저과정을 교육받는 피교육생을 뜻하며, 계급표지를 하지 않아 엄격한 수준의 훈련 효율성을 제고하기도 한다.

미국의 레인저부대는 미국 국민들의 초기 이민시절부터 용감하고도 모험적인 부대로 시작되었다. 이민초기(1607년~) 이민자들은 외부(주로 인디언)로부터 자기방어를 위해 요새를 구축하여 생활했다. 그래서 이 요새 밖으로의 정찰과 탐험은 용감한 자원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이 소규모 요원들을 레인저라 했다.⁶⁾

그 후 1756~1763년간의 식민지전쟁 당시 영국이 정식으로 레인저부대를 편성 운용했다. 당시는 전문 산림지기와 포수들로 구성하여 산림지대에서 프랑스·인디언 연합군 등을 발견하여 보고, 측방 엄호, 위험지대내 적에 대한 공격, 그리고 무법자 소탕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5) Robert P. Gwinn, ed., C. Hairman,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vol. 3, p. 486.

6) Allan R. Millett, 『For The Common Defense, A Mili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 of America』, New York, THE FREE PRESS, 1994, p. 10.

특히 식민지전쟁 당시의 ‘로버트 로저(Robert Roger)부대’와 멕시코 전쟁 당시 ‘텍사스 레인저’가 유명했다. 그 후에도 미국역사에 기록된 모든 전쟁 때마다 편성 운영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는 보병소대에 최소한 4명 이상의 레인저가 확보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레인저대대를 편성 강화 중에 있다. 다시 말하면 레인저는 미국식 특공대이며 또한 코만도부대이다.

(3) 특수전(特殊戰 : Special Warfare)

특수전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그 하나는 ‘특수한 전쟁’이라는 뜻으로 겉보기에 자기 군종(軍種)의 특질과 다른 고 난도의 임무작전을 의미하며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특히 미국 해군의 ‘Seal부대’, 한국 해군의 ‘UDT부대’ 등이 있다. 영어로는 ‘Special Forces’라고 표현도 한다.

그리고 진짜 특수전(特殊戰)을 구별하여 흔히 ‘특전(特戰 : Special Warfare)’, ‘특전부대(Special Warfare Forces)’라는 것이 있다. 1961년경, 소련의 후르시초프에 의해 소위 해방전쟁이 선언되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유연대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으로 응수했다.

그때 미국은 포트 블랙(Ft. Black, N.C)에 ‘존 에프 케네디 센터(Special Forces Center)’를 설립하고 특전(特戰)에 대한 교리를 수립하고 특전부대를 훈련했다. 이 미국의 특전부대를 일명 ‘녹색 베레(Green Beret, 한국특전부대는 검은 베레)’라고도 한다. 케네디는 이 부대로 하여금 당시 소련점령하의 위성국들에 파견하여 이들 국가들을 해방시키려는 목적으로 창설하였던 것이다.

특전의 정의로는 ‘냉전이나 국지전 또는 일반전쟁 상황하에서 자국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된 요원 또는 준 군사요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비정규전, 대비정규전(對非正規戰) 및 심리전을 포함하는 정치, 군사 및 준 군사활동을 말한다.’⁷⁾

7) 미 육군성, 『야전교범 31-21, 특수전부대작전-영어교범』, 미 육군성, 1969.

아직 완전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아프간전쟁(2002)과 이라크전쟁(2003)에서 미군과 동맹군이 큰 손실 없이 미국이 바라던 대로 조기에 승전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전에 그리고 동시에 수행되었던 이 특전부대작전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4) 한국군과 특공전

1) 한국군의 특공전 용어 유래

한국군의 건군 당시는 주로 한문의 영향을 받아 특공전 또는 유격전(遊擊戰)이란 용어를 같은 의미로 혼돈해 사용했다. 그러다가 1962년 한국군이 야전교범을 정리할 때 ‘야교 31-21’을 편찬하였는데, 그 표제를 ‘유격작전 및 부대훈련’으로 가칭하여 당시 필자가 근무하던 보병학교 유격학부로 검토 의뢰해 왔었다. 검토결과 ‘특공전 및 특공부대 훈련’으로 개칭하여 건의하였는 바, 건의안 대로 명명되어 발간되었다. 따라서 그 때부터 우리 군에서는 ‘특공전’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사용되었다.⁸⁾

2) 특공전의 운용범위

특공대가 실시하는 특공전은 그 실시장소, 실시목적, 실시방법에 따라 작전결과가 미치는 영향범위도 다양하다. 크게 전략적, 작전적(作戰的 : 전술과 전략사이에 들어가는 전술작전 개념), 전술적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술적·작전적 운용이다. 전술적 특공작전이란 대부분의 경우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작전의 일부로서 통상 연대단급이하 부대가 특공부대를 편성해서 연대급 작전지역 내외에서 특공활동을 실시하는 작전을 뜻한다. 작전적 운용이란 통상 사단 또는 군단급 부대가 특공부대를 작

8) 필자본인, ‘육군보병학교 유격학부’, 교관시절, 1962~63.

전지대 내에서 작전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전략적 운용이다. 전략이란 용어자체의 적용 범위가 군사전략에서부터 국가군사전략 그리고 국가안보전략(통칭 대전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때문에 특공부대의 전략적 운용은 주로 군급이상 부대(또는 정부기관)에서 계획되고 시행된다.

군사전략적 운용의 예(例)로 지난 6·25전쟁시 북한군이 동해안에 상륙시킨 '제 766 유격연대'의 활동이 있다. 이 부대는 6·25전쟁 서전에 아군 동해안 전선 후방에 상륙하여 전방부대를 후방에서 압박하였으며, 동시에 지대 내에서 활동중이던 게릴라부대를 작전지도하여 아군을 '포항전선'으로 강박한 바 있었다.

최근(1976. 7. 4)에는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3,600여km 떨어진 아프리카의 '우간다, 엔테베' 비행장으로 날아가 팔레스타인 인질범들에게 피랍된 120명의 승객을 구출하고, 검하여 공군기 10여대를 파괴함으로써 케냐에게 우간다의 위협을 제거해 주었으며, 공중 납치범들에게 큰 경고를 준 바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 중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스코르제니(Skorzeny) 특공대'에 의한 전략적 운용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스킨제니(Skorzeny) 특공대의 국가안보 전략적 운용

(1)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의 특공대 운용사례

1) 폴란드 침략(OP. Barbarossa)의 명분을 갖기 위한 위장작전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시작되었다. 바로 그

전날(8월 31일) 밤, 독일은 전 세계인과 독일국민 자신을 기만하기 위해 히틀러 친위대 소속의 특공부대(Brandenburg battalion 등)들로 하여금 국경선 지대를 연하여 사건을 일으키도록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독일 실레시아(Silesia)지방의 글라이비쯔(Gleitwitz)에 위치한 독일 자국의 방송국을 습격한 사건이었다.

친위대의 지령을 받은 특공대가 폴란드군으로 가장하여 이 방송국을 습격하면서 방송요원들을 사살한 뒤 일시 점령하고는 폴란드 말로 독일을 비방하는 방송을 송출했다. 이는 폴란드가 먼저 독일을 침략하여 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는 증거를 날조하기 위한 위장전술이었다.⁹⁾ 이는 평양정권이 6·25전쟁을 일으켜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한 순간 ‘남측이 북침을 해왔기에 우리는 후퇴하다가 용감하게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반격해 내려가고 있다’고 방송한 것과 같은 맥락의 위장전술이었던 것이다.

2) 네덜란드 조기점령을 위한 선제 후방교란 특공작전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에 의한 소위 ‘서부공격’이 시작되었다. 그 첫째 타깃이 바로 네덜란드(화란)이었다. 160km도 넘는 국경선을 연하여 기갑부대의 전격전으로 전면 침공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앞서 독일군은 또다시 전략적 특공작전을 실시했다.

이름하여 ‘트로이의 목마작전’이었다.¹⁰⁾ 국경선에서는 고무보트를 이용한 특공부대가 네덜란드 헌병으로 위장하여 침투 후 운하상의 주요교량들을 선점하여 본대인 기갑부대의 신속한 진격을 보장했다. 동시에 공수특공부대들은 헤이그와 로테르담 부근에 투하되어 교통의 주요지를 장악함과 동시에 영민한 동작으로 시민들을 기만하여 도시전체를 공황으로 몰아갔다.¹¹⁾

9) 정하명 외 5인, 『세계전쟁사』, 육군사관학교, 1982. 2, 313쪽.

10) 岩島久夫, 『奇襲の研究』, PHP研究所, 1984, 57쪽.

11) 제리 콘 편집장, 『독일 전격전-라이프/제2차 세계대전』, (주)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편집부, 1981, 115쪽.

당시 서방국가 시민들의 분위기는 잘못된 국가안보전략사상을 가진 정치가들의 잘못된 국가운영으로 말미암아 패배감에 의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독일은 이를 간파하고 사전에 제5열을 침투시켜 유언비어와 선동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 결과 프랑스 파리에서는 대낮에 누군가가 상제리제 거리에서 “앗! 독일공수병이다!”라고 한마디만 해도 순식간에 전 시가지가 빈 시가지가 되면서 고양이가 나타난 쥐구멍의 분위기가 되었다.

이러한 때에 네덜란드 수도와 대도시 상공으로부터 돌연히 나타난 독일 특공요원들과 미리 침투해 있었던 5열들이 만나는 시민마다 선전하고, 그리고 또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곧 독일 공군의 대대적인 폭격이 있다. 모두 피란 가라”고 선동하며 뛰어다녔다. 한편 독일의 방송국들은 바로 그 시간에 일제히 강력한 출력으로 네덜란드와 벨기에 방송주파수에 맞추어 “독일 공수부대가 우리나라 전 지역에 낙하되었다. 그들은 우리 군대와 똑같은 복장과 장비를 하고 있다. 국민 각자의 엄중한 경계를 요한다”라며 흑·백 모략선동을 실시했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주변에서 활동중인 모든 장병을 의심하였고 심지어는 공중전화까지도 의심하기에 이르렀으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심에 의하여 국민 대공황이 일어나고 드디어 전쟁발발 5일만에 네덜란드는 독일군에 항복하고 말았던 것이다.¹²⁾

(2) 스키프제니 특공대의 뭇솔리니(Mussolini) 구출작전

제2차 세계대전이 중반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역전되었다. 그 결과 독일군의 후퇴에 따라 동·서부전선의 점령지역 괴뢰국가마다 상전이었던 독일을 배반함과 동시에 독일군에 즉시 선전포고하면서 연합군에 가담했다. 그

12) S.L.A 마셜-병학사 편역, 『전격전』, 병학사, 1983. 1, 163쪽.

특전사 정보처, 『모략전』, 특전사령부, 1976. 3, 250-1쪽.

러기에 가능한한 의 접령국 괴뢰정권들의 배신을 저지하고 동맹을 유지해 보려고 모략적 무력수단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총수이며 히틀러의 유일한 유럽 협력자인 뭇솔리니가 이탈리아 국왕에 의해 연금된 때는 1943년 7월 23일이었다.¹³⁾ 1943년 여름은 독일군이 전 전선에서 후퇴에 가속이 붙고 있던 상황이었다. 소련 전선에서는 봄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대 타격을 입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때 만쉬타인군에 의해 반격도 시도해보고, 또 쿠르스크(Kursk)에서 대전차전(大戰車戰)에 의한 ‘씨타델작전(Op. Citadel-Zitadelle)’도 감행해 보았으나, 소련군의 반격 흐름을 꺾지 못한 채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북아프리카에서도 독일은 롬멜의 아프리카군단이 몽고메리 영국군과 패튼의 미군에게 1943년 5월 항복함으로써 아프리카를 잃고 유럽 내륙으로 후퇴했다. 동시에 프랑스 비시 괴뢰정권의 해군이 연합군에 귀순함으로써, 지중해의 제해권도 장악한 가운데 연합군이 7월 9일부터 이탈리아 남부에 상륙해 왔다. 이 때 독일군은 이탈리아방어에 열중하였으나 이탈리아군과 국민은 저항력을 잃고 전투의욕을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구축국동맹에서 이탈하여 연합군에게 항복할 자세를 보였다.

드디어 7월 25일, 이탈리아 국왕은 뭇솔리니를 왕궁으로 소환하여 전격적으로 체포, 구금한 뒤 신 행정부를 성립시켰다. 이에 독일군은 로마를 점령하고 이탈리아군을 일단 무장해제 시킨 뒤 거의 단독으로 연합군에게 계속 저항하고 있었으나, 날이 갈수록 전황이 불리해 지고 있었다. 새로 구성된 이탈리아 내각은 연합군에게 그들의 취약성을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단독 강화협상의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히틀러는 생각했다.

이탈리아는 실제로 연합군과 단독강화를 협상하여 9월 8일에 발효시킨 바 있었는데, 당시 독일의 입장에서는 만일 그렇게 되면 독일군의 남부전선은 연합군의 침공 앞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여하한 대가를

13) 특전사령부, 『특공전』, 165쪽.

치르더라도 이탈리아를 전쟁상태하에 잔류시켜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맹우(盟友)요 파쇼 독재자인 뭇솔리니를 구출하여 다시 전 이탈리아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¹⁴⁾

그리하여 그 시점에서 히틀러는 당시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스코르제니 특공대장을 불러 자신의 의도(뭇솔리니의 구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작전 명령을 직접 하달했다.¹⁵⁾ 당시 독일의 히틀러 돌격대 참모본부 예하에는 특공부대로서 ‘브란덴부르크 대대(Brandenburg Battalion)’를 근간으로 발전시킨 2개 사단이 있었다. 스코르제니는 이 부대에 소속되어 1943년 4월에 “프랑스와 작전(OP. francois : 미군의 대소원조물자 수송로 중 하나인 ‘페르샤 루트’를 봉쇄 또는 방해하려는 작전)”에 잠시 참여한 바 있었다.

베르린에서 특수전략 작전명령을 직접 수령한 스코르제니 대위는 50여명의 특공대를 조직하고 작전에 필요한 무기장비는 물론 이탈리아화폐, 성직자 복장, 그리고 심지어는 염색 머리와 위조 신분증 등도 준비했다.¹⁶⁾

그때쯤 이탈리아의 바도그리오 신 내각은 여러가지 성명으로 연막을 치면서 뭇솔리니의 연금 상황 및 위치에 대해 극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긴박한 상황하에 이탈리아 현지에 도착한 스코르제니는 전 독일 정보요원들과 함께 우선 뭇솔리니의 연금처를 탐지하는데 전력을 경주했다. 심지어 베르린에서는 히틀러가 뭇솔리니를 찾기 위해 점성가나 점쟁이들을 보내기도 했다.

정보착오에 따라 시행착오를 반복해 오던 어느 날, 독일정보기관에서 이탈리아 정부산하의 어떤 기관에서 이탈리아 내무부로 가는 잘못된 음어를

14) 정하명 외 5인, 『세계전쟁사』, 423쪽.

15) Otto Skorzeny, 『Skorzeny's Secret Mission』, New York, E.P. Dutton & co., Inc., 1950, pp. 43-44.

16) 좀더 상세한 준비과정과 정찰과정 그리고 작전과정을 알고자 하는 독자는 ‘특전사령부, 『特攻戰』, 1977. 1, 육군 제6지구인쇄소를 참고 바라며 더욱 상세한 연구를 원하는 독자는 Otto Skorzeny가 직접 쓴 자서전 『scorzeny's Secret Missions』, New York, E.P. Dutton co, 1950을 참고 바란다.

포착 이를 단서로 추정한 결과 “뭇솔리니는 현재 바로 ‘그란 샷소(Gran Sasso)’라는 산악의 어떤 시설물에 연금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스킨제니는 현지정보의 종합과 작전계획 수립 그리고 실행훈련을 동시에 진행시켰다. 그란 샷소는 에피나인즈 산맥 중에서도 최고봉에 해당되는 고산지대로 로마로부터는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제2단계 정밀조사 즉 정보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정찰기를 이용해서 직접 육안정찰을 시도했다. 그 결과 그란 샷소 지방에는 해발 약 2,000미터 높이의 중간 고지에 최신시설을 갖춘 동계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호텔(캄보 임페라토르)을 중심으로 모든 시설이 배열되어 있었다. 아마도 그 호텔에 뭇솔리니가 연금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고 경비요원이 1개 대대규모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그곳으로 향한 접근로는 단 하나의 케이블카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직접 비행하여 촬영한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호텔지역 일대는 평지이고, 정원은 평탄하게 보였다. 그 결과 소수 정예요원에 의한 글라이더 공중 강습작전으로 결정하였는데, 글라이더가 목표지역에 도달하는 즉시 착륙하도록 계획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만 된다면 뭇솔리니에게 접근해 갈 수 있는 충격적인 기습시간은 불과 3분간이면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물론 그후 철수시까지 소요시간은 행운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12대의 글라이더와 이 편대를 위한 견인 항공기에 의해 특공요원들이 목표지역으로 수송되도록 계획되었다. 비행편대 편성으로는 제1번기와 2번기에 각각 10명씩의 대원이 탑승하고, 선두를 비행하면서 3번기를 엄호하다가 착륙 후에는 즉시 주변에 전개하여 3번기의 착륙을 지원 및 엄호하도록 했다. 이 3번기에는 바로 스킨제니 특공대장이 탑승하여 착륙과 동시에 ‘3분간의 작전’을 실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4번기는 3번기를 후속 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리하여 D-day H시는 9월 12일 07시로 결정하고, 철저한 훈련을 반복하면서 그날 그 시간을 대기했다.

드디어 출동의 날이 되었다. 대략 10명 단위 탑승편성의 글라이더 12대와 견인 항공기가 이륙했다. 이륙 중 2대의 글라이더가 활주로상에 생긴 폭격 탄흔을 피하지 못해 이륙에 실패, 끝내 작전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항공통로는 이미 연합군이 장악한 공역이었으므로 부득이 고도 4,000미터의 뭉게구름 속으로 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기준 글라이더 즉 선두 1·2번 엄호기 2대가 행방불명되었다. 그러나 달리 대책은 없었다. 남은 스코르제니 일행은 다만 목표를 향한 비행을 계속할 뿐이었다.

드디어 목표 상공에 이르러 호텔과 부속 별장 그리고 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정원이 나타났다. 그래서 스코르제니는 “자 가자!”라고 소리치면서 조종사에게 신호했다. 견인기로부터 로프가 풀려나간 글라이더들은 속도 등을 조정하면서 착륙을 준비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실제 착륙 현장을 본 후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원은 아무리 과장해서 표현해도 착륙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군데군데에 관목과 바위가 깔려 있고 경사 또한 급하여 최악의 착륙장 조건이었다. 스코르제니 특공대장은 상급지휘관인 스투덴트 장군으로부터 “만일 착륙조건 불량시 타 장소에 착륙하거나 또는 임무를 포기해도 좋다”라고까지 양해성 경고도 듣고 있었으나 여기까지 와서 그럴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최악의 활주 조건하에서 각각 순서대로 (착륙이라기 보다 차라리 낙하)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스코르제니와 제3번기 대원들은 착륙과 동시에 엄호도 없이 최초 3분간의 작전을 위해 20미터 전방에 위치한 호텔의 첫 번째 도어를 향해 돌격해 들어갔다. 그리고 재빨리 정보에서 판단해 둔대로 못솔리니가 감금되어 있다고 알려진 테라스가 붙은 방 밑으로 접근해 갔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창문을 통해 방으로 뛰어들기 위해 스코르제니는 부하들의 어깨를 빌려 올라섰다. 과연 그곳 방안에는 히틀러가 원하는 인물 못솔리니가 있었다.

스코르제니는 그에게 무조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본인이 직접 뛰어내렸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다. 아마도 기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서 그 방문 앞의 보초를 제거하고 못솔리니의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역시 2명의 이탈리아군 장교가 못솔리니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창문으로 뛰어든 부하들에 의해 그 두 장교는 제압 당하고 못솔리니는 드디어 특공대의 보호하에 있게 되었다.

밖에서는 아직도 후속 글라이더가 착륙 중에 있었는데, 네 번째 글라이더는 땅에 닿는 순간 지상 장애물에 걸려 전복되어 산산조각이 나면서 탑승 특공대원들 모두가 희생되는 것을 스코르제니는 바로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스코르제니는 더 이상 병력의 증강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고, 현재 병력으로 제압작전을 개시했다.

그리하여 못솔리니의 근접 경계병들이 차지하고 있을 바로 옆방으로 가서 문을 열고 동시에 사격으로 위협하여 경비책임자를 색출, 경비대 전원의 항복을 받았다. 그 즉시 창문에는 흰 시트가 걸렸다. 그리하여 스코르제니는 특공대원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못솔리니에게 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했다.

“진정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총통각하의 명령에 따라 당신을 구출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못솔리니는 손자를 대하듯 지극히 다정하게 그리고 감격스럽게 “나는 나의 친구 아돌프 히틀러께서 나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듯 나를 구출하여 준대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 드립니다”라고 응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철수문제였다. 못솔리니와 함께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으로 보아 육로를 이용하기는 위험했다. 그래서 스튜덴트 장군 전용기로 바로 이 정원에서 못솔리니를 픽업하려 했다. 그리하여 보고 결과 용감한 조종사 게르락이 조종하는 ‘백조(전용기 애칭)’가 날아왔고, 죽음을 각오한 조종사의 노력으로 못솔리니와 스코르제니 그리고 두 명의 호위 장교는 정원에서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다.¹⁷⁾

17) 이창록 외 1인 번역, 『승리와 패배. (20-인명사진)』, 理想社, 1974. 2, 85쪽.

이로서 못솔리니는 구출되었고, 동맹군의 이탈리아전선은 다시 원기를 회복하여 1943년 가을과 겨울 그리고 1945년 봄까지 버텨으로써 연합군은 이탈리아 상륙작전 의도(제2전선 형성)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독일·이탈리아 동맹군에 의해 대병력이 남부전선에서 견제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⁸⁾

(3) 스키프제니 특공대의 빼땡(Pétain)의 비시(Vichy) 괴뢰정권 탈취작전

1943년 11월, 스키프제니는 황급히 또 하나의 대 전략적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번 것도 전과 같이 황당한 명령이었고, 군인이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당시 독일군의 서부전선은 연합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해 정치·군사 양면으로 준비중이었다. 특히 북아프리카 전지역을 연합군이 점령함과 동시에 ‘자유프랑스정권(드골이 지도하는 망명 프랑스정권)’이 강대해지자, 독일군 점령하의 프랑스 비시괴뢰정권이 더욱 불안정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제는 자유프랑스 마귀부대(Maquis : 국내저항세력)가 비시정권(요원들)을 장악하려는 모략작전을 구상 중일 수도 있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수령한 명령은 ‘1단계로 비시(수도)를 봉쇄하고, 2단계로 명령에 의하여 프랑스 괴뢰정권 자체를 탈취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키프제니는 필요한 병력을 지원받아 제1진을 보강한 뒤에 전원 사복으로 변장하여 시내 관광객으로 위장해 시를 봉쇄하기 위해 요소 요소에 침투, 배치했다.

중앙청사는 시내 최고급 호텔에 있었고, 이 건물은 인접한 건물에 비밀 복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이 남부 도시는 오후가 되면 시에스터(잠자는 시간)가 있어 적막한 분위기로 변했다. 그래서 교통장애 없이 예비대(타

18) 정하명 외 5인, 『세계전쟁사』, 432쪽.

격부대)가 위치한 비행장에서 3마일 거리에 있는 정부청사까지 반트럭으로 7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스키프제니는 작전계획을 준비하고 철저히 반복 연습했다. 작전계획의 요점은 ‘늑대가 짖는다’는 경고와 함께 그의 충격부대(보병 2개 중대)는 반복 연습했던 대로 “10분내에 승차출동 완료하고, 가능하다면 오후 1시 45분에 출발, 8~10분만인 2시 이전에 청사에 도착 즉시 회의장 및 요소를 점령하여 일단 상황을 종결한다. 그리고 유사시 철수를 위해서 주요지점에 장갑부대를 배치하고 긴급시는 정찰했던 통로를 이용하여 신속히 철수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전에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던 ‘그랜샷소’ 작전과 같이 무혈작전으로 준비되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히틀러 최고사령부의 변심으로 취소되고, 1943년 12월 20일에 스키프제니부대는 베를린으로 복귀하여 차후 명령을 다시 대기했다.¹⁹⁾

(4) 스키프제니 특공대의 친소 헝가리 정권 제거작전

1943년 11월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어 독일군은 완전히 방어전략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탈린그라드와 쿠르스크 전투에서 반격에 성공한 소련군은 대공세를 시작하였고, 1944년에는 전동부전선과 남동부전선에서 급속한 승리와 함께 전진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세계공산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등을 점령과 동시 모략공작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동맹국이던 독일을 향해 선전을 포고하도록 했다. 9월말 경에는 유고와 헝가리를 공격하였는데 유고는 해방되었으나 헝가리에서는 잠시동안이나마 상당한 저항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바로 스키프제니 특공부대와 그들에 의한 전략작전

19) Otto Skorzeny, 『Skorzeny's Secret Mission』, pp. 107-121.

의 성공이 있었던 것이다.²⁰⁾

10월경이 되자, 헝가리의 친독 괴뢰정권(수반 : Admiral Horthy)도 연합군과 소련군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단독평화협상을 원하고 있었다. 이것은 특히 현 상황하에서는 독일에게 치명상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히틀러는 스킨제니를 직접 불러 명령했다. 그것은 헝가리 괴뢰정권이 우리와의 동맹 조건을 배반하려는 순간에 부다페스트의 “부르베르그에 위치한 행정부(Castl Hill)를 무력 점령하라”는 것이었다.

독일군 참모본부계획은 공정부대나 그라이더에 의한 직접공격이었다. 그를 위해 스킨제니의 본대 외에 2개 대대가 추가로 제공되었다. 하나는 사명감에 불타는 장교후보생 1,000여명으로 구성된 대대이고, 또 하나의 대대는 역전의 공정부대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스킨제니는 헝가리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었으므로 작전구상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명령수령 즉시 일단 부대 출동명령을 하달한 후 부다페스트로 이동했다.

현지 정보에 의하면 괴뢰정권 수반 홀시 제독의 아들 니클라스 홀시가 이미 유고의 밀사(티토 측)와 접촉하여 단독 강화조약을 준비중임을 알았다. 그리고 며칠 안으로 괴뢰수반이 직접 참석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현지 정찰결과 부르베르그는 천연요새로서 그 지하에는 땅굴과 우물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보는 실제작전 행동시에 도움이 될 것이었다.

1944년 10월 10일 밤에 니클라스 홀시와 유고의 밀사가 비밀리에 어느 안가에서 회동하였으며, 최종회담은 15일에 다뉴브강가의 한 큰 건물에서 회동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때 헝가리 점령 독일군 사령부의 특별 제의에 의하여 스킨제니 특공부대가 이 작전부터 참여하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스킨제니는 이제 행동을 개시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으며, 우선 괴뢰정권 수반의 동생 홀시와 그의 협상 상대인 유고의 특사를 생포하

20) 물론 결국에 가서는 헝가리도 12월말에 항복하고 동시에 독일에 선전포고했다.

고, 이들을 처단하게 되면 괴뢰정권의 수반도 단독평화교섭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최종회담이 약속된 10월 15일 오전 10시 이전에 스킨제니 특공대는 임무위치에 전개 완료했다. 그리하여 회담시작 몇분 후에 현장지휘관인 스킨제니가 자동차로 현장에 도착하여 회담자들이 타고 온 차량을 주저 없이 막아서면서 주차했다. 유사시 그들의 도주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10시 15분에는 체포자 수송용 차량이 도착했다. 거기서 하차한 독일 경찰복장의 특공대 2명이 회담장으로 접근하자, 비상경호 중이던 헝가리 정부 군용포장 화물트럭에서 헝가리 장교 2명이 급히 사격하면서 뜰로 내려섰고, 독일경찰로 위장했던 특공대중 한 명이 쓰러졌다. 이때 스킨제니의 호각을 신호로 본 작전이 개시되었다.

초기에는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포장 트럭 뒤에 예상되는 예비대를 향해 수류탄도 투척되었다. 동시에 회의장을 향하여 특공대원이 진입하려할 때, 예상대로 상대가 탈출하면서 사격을 해음으로써 즉각적인 반응으로 탈출구를 향하여 수류탄이 투척되었다. 이 수류탄의 폭발로 적들의 저항은 숨을 죽이고 동시에 군사행동은 종결되었다. 이 모두가 불과 5분 여의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드디어 4명의 포로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두 명의 헝가리인 니클라스 홀시와 그 친구 보르네미짜(Bornemisza)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을 인계받은 독일경찰은 이들을 거칠게 다루면서 행인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묶어서 카펫으로 둘둘 말아 마치 포장물 같이 만들어 포장 트럭에 옮겼다. 이들 배반자들은 심하게 저항했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본 작전의 성공담을 평가절하할 것 같이 보였다.

이를 본 스킨제니 특공대원들은 불필요한 후속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현장을 이탈했는데, 철수 도중에 바로 몇 백미터 지근거리에서 대기 중이던 헝가리 경찰 예비대와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될 뻔했으나 전혀 무관심한 자세로 위기를 모면하면서 인근 비행장 즉 특공대의 임시기지로 성

공적으로 철수 완료했다. 동시에 두 명의 변절자 포로들은 비엔나행 비행기로 즉시 후송되었다.

이어서 스코르제니 특공대는 계속해서 부르그베르그(Burgberg)에 위치한 친독 괴뢰정권(단, 지금은 적대방향으로 배반중인)을 강제 접수하려는 본 임무를 위해 태세를 강화했다. 그런데 그 부르그베르그 지대내에 위치했던 독일대사관의 정보에 의하면 납치사건 직후 괴뢰정권은 뚜렷하게 반독일화했다. 그리하여 헝가리 경찰이 전지역을 요새화 하면서 독일대사관을 또한 포위하였고, 수 분전부터는 대사관 부 무관이 외출(탈출)을 기도했으나, 검문소마다 통과를 거부당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흔히 외교적 용어로는 ‘비우호적 행위’라고 말하는데 이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어떤 성질의 것이 되려는지 예측하기에 어려운 바 있었다.

드디어 오후 2시경이 되자, 독일 당국의 기대와는 반대로 헝가리 라디오는 괴뢰수반의 특별선포문을 발표하여 가로되 “헝가리는 러시아와 특별평화 상태가 되기로 이제 결론을 내렸다”를 방송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독일군의 관심과 고민은 정치인들의 이러한 배반적 성명이나 적국으로의 탈출 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혈맹으로 생사를 함께 했던 헝가리 군대의 향방이었다.

그래서 급히 독일군 장군을 ‘카파치안 전선(Carpathian Front)’에 있는 헝가리군 사령부로 특파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 사령관과 그 비서 일행은 러시아로 도망한 뒤였다. 그러나 다행히 대부분의 장교들은 그들을 따르지 않고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요동치는 상황이 역력했다.

또 스코르제니 특공대는 언덕 위 요새에 위치한 괴뢰정부를 계획대로 점거하여 제거하고 새로운 친독 괴뢰정권으로 대치하도록 하는 임무를 지체 없이 수행하려고 결심했다. 그리하여 며칠 전에 헝가리 자체경찰이 행정부 요새 외각전면에 경계배치된 것에 대하여 우선 그 외곽에 독일군을 포위형식으로 배치하여 외부로부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내부인들의 외부 접촉을 단절시키고 유사시는 외곽경비부대를 견제함과 동시에 요인들

또는 패잔병들의 외부 탈출을 통제하도록 했다.

한편 내부작전으로는 기습작전을 계획했다. 그리고 그것은 수 개 방면에서 수 개 부대에 의하여 동시에 공격을 실시하되 중점지대로 집중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바로 이 성채의 정면도로인 ‘비엔나로드(Vienna Road)’를 연한 중심부 일대였다. 그 작전은 스킨제니가 직접 자기 본대를 지휘하여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그들은 우선 비엔나로드 정문을 가능한 소리지 없이 장악한 뒤 특공대 용사들을 성채 정면으로 전개하여 신속하게 성내로 입성시켰다.

그런데 이 성채가 바로 유혈가능성 지대로서 이를 가능한 피하려면 성내에서는 양 측면으로 동시 공격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또한 결정적인 공격력을 구성하기 위해 특공부대는 판저(Panzer : 독일군 전차)중대와 골리앗(Goliath : 파괴, 구조, 견인용 전차의 애칭) 장갑중대로 증강했다.

배속받은 사관학교 생도들은 성채 정원방향으로 공격하여 주력의 남측면을 엄호하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덕 수풀 속에 위치한 상당수의 헝가리 경비대 기관총들을 제압해야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제600 히틀러 공정돌격대대는 성문출입용 비상교량 밑으로 굴착된 터널을 통하여 성내로 진입, 곧바로 국방부와 내무부 건물로 침투 공격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특공부대들과 히틀러 돌격대소속 공정대대의 전차 4대, ‘골리앗’들은 비엔나 정문 그리고 성채를 기습공격 하려는 스킨제니 직접 지휘부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공군소속의 공정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로 확보했다. 그리하여 자정 경에는 히틀러 돌격대 제22사단이 형성한 포위선을 따라 특공부대들은 전개를 완료했다.

그런데 잠시 후 헝가리 국방부의 한 고위 장교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요새내 경로를 통해서 돌연 현지역 독일 군단사령부에 나타났다. 독일 군단에서는 물론 “홀시 괴뢰정부의 ‘단독평화추구선언’을 취소하지 않는 한 여하한 협상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성채 내에 격리(연금)된 독일대사관 직원들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도 ‘비우호적인 행위’임을

지적해 주었다.

그런데 방문자의 태도로 보아서 그와 그의 많은 동료들이 헝가리 괴뢰정권의 독일에 대한 갑작스런 변절에 대해 매우 당황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와의 대화는 두 시간 여에 걸쳐 우호적으로 진행된 뒤에 그는 복귀해 갔다.

3시경에 현장 총 지휘관인 동시에 정면돌파 팀의 선봉지휘관인 스킨제니에 의해서 최종적인 작전협조 회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H시는 06시 먼동이 틀 때로 약정되었고, 특히 무력사용 즉 사격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제되어야만 최소의 희생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헝가리 사람들은 독일군의 적이 아님을 일단 강조해 두었다.

최종 협조회의 종료와 동시에 현장 작전 지휘관인 스킨제니는 금번작전의 핵심작전요소인 경차량부대를 직접지휘하기 위해서 정위치했다. 그 팀의 뒤에는 4대의 전차와 골리앗 그리고 그 뒤로 특공대원들이 뒤따를 예정이다. 작전요원 전원은 개인화기를 일단 안전장치 했다. 이들은 비엔나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2개 방향으로 분리되면서 마치 공을 받은 럭비선수가 뛰어 나가듯 최고의 속도로 계획된 성정원(城庭園)을 향해 질주해 나갈 예정이다.

긴박한 시간은 새벽 5시 30분에서 45분 그리고 또 흐르고 있었다. 선두 차에는 못솔리니 구출작전시 즉 ‘그란 샷소(Gran Sasso)’ 현장에 참전했던 역전의 스킨제니 특공대 용사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이제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조이고 개인 장비인 자동권총과 수 개의 막대수류탄 그리고 휴대용 대전차화기인 ‘바주카(Bazooka)포’ 등을 점검했다.

이 시점 전투요원 전원의 관심 초점은 요새 언덕 위에 집결되어 있는 헝가리 경계병 장갑차의 움직임이었다. 만일에 그들을 조용하게 하려면 특공대는 자체 전차포나 바주카포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것이었다. 시간은 새벽 5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되었다.

스킨제니 특공대장은 오른팔을 높이 들고 원을 그리면서 “시동을 걸어

라!”고 명령하고, 지휘차량에 올랐다. 그리고 팔을 번쩍 들어 앞을 가리키면서 ‘진진!’을 명령했다. 올라가는 길은 경사져서 서행했다. 지금의 소망은 전진하는 부대가 오로지 매설된 지뢰를 밟지 않는 것이었다. 긴장된 가운데 그곳을 무사히 통과하여 드디어 비엔나 정문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헝가리 경계병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다. 선두부대가 이 장애물을 뚫고 전진하자 헝가리 경계병들은 그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수분 후에 선두는 평지에 도달했다. 그로부터 제대는 속도를 높여 다음 목표를 향해 질주했다. 전진부대의 우편에 경비대 숙소가 보였고 그 출입문에는 기관총과 함께 경계병이 있었다. 만일에 부대 측방을 공격받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되기에 신경을 곤두세웠으나 다행히도 그들 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들리는 소리는 오로지 천둥소리 같은 전진부대의 전차소리뿐이었다.

이리하여 스킨제니 직접지휘 부대는 우측방향으로 독일 대사관을 향해 더욱 속도를 높였다. 이제 시속 25마일이 되었다. 본 성채(城砦)까지는 불과 1마일밖에 남지 않았다. 작전 제1단계는 완전한 성공으로 총소리 한방도 들리지 않은 채 언덕 위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특공부대 선두부대 우측으로 따로 위치한 국방부 건물구역이 보였다. 그때 먼 거리에서부터 세 번의 폭발음이 들렸다. 아마도 특공부대의 일부가 지하통로를 통과 영내에 침투 성공함으로써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이 확실했다.

선도부대가 그 국방부를 지나 성채광장에 나서자 3대의 적 전차가 진격로 앞을 가로막아 버티고 서 있었다. 그러나 선도부대가 그중 첫 전차 옆을 통과하자 그 전차의 전차포는 적대를 이미 포기한 듯 하늘을 향하여 조준되었다.

성채정문 정면에 헝가리인들이 건물 블록마다 사람 키 보다 높은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놓았었다. 그래서 선도부대 후속 전차를 앞세워 이 장애물

들을 쓰러뜨리면서 성의 정원으로 전진을 계속했다. 그런데 정원에 이르러 보니 선도부대 정면에 6정의 대전차화기가 이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전차들은 좌우로 갈지자를 하면서 돌무더기 장애물 등을 지나 아치 밑을 통과하자 성채 경비부대의 한 중령이 권총을 손에 들고 길을 막아섰다. 그러자 선도부대의 한 요원이 그를 옆으로 밀어버리고 전진을 계속했다. 드디어 본 건물의 주 출입문으로 보이는 문이 오른쪽으로 보이자 모두 뛰어내려 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한 헝가리 장교가 급히 뛰어와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러더니 스코르제니가 그를 향해 고함치며 “즉시 나를 너희 지휘관에게 안내하라!”라고 했다. 때마침 놀랍게도 그는 공손하게 스코르제니 부대를 2층으로 안내했다. 스코르제니는 필수요원만 수행하게 하고 남은 요원들은 그들을 엄호하게 했다. 그 안내장교가 별실문을 지적하였는데, 놀랍게도 그 방의 한 복도 창문 뒤 테이블에는 경기관총이 거치 되어 있었고, 기관총수는 막 도착한 특공대원들을 향해 사격할 태세였다. 그래서 수행중인 한 요원이 빨리 접근하여 그를 밀어붙이고 기관총을 들어 창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스코르제니는 사주경계를 하면서 그 방문을 한두 번 노크하고 문을 밀치며 들어가니 방안에는 한 헝가리 장군(준장)이 앞으로 나왔다.

스코르제니는 급히 “짐작으로는 당신이 이 성채부대의 총지휘관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시 우리에게 항복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우리 상호간의 유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즉시 결심하십시오!” 사실 스코르제니는 이미 복도에서 나는 소총소리와 먼 곳에서 기관총 소리를 듣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사정조(事情調)가 될 수밖에 없었으리라. “우리는 이미 이 성채를 점령했다, 당신도 잘 알지 않느냐, 더 이상 저항은 무의미하다”라고도 말했다.

사실상 다른 특공대 분견대는 이미 본관 안으로 진입하였고, 곧 소탕전이 전개될 시점이었다. 스코르제니는 이번에도 예전에 실시하여 성공했던 전략작전에 따라 최소한의 인명손실로 기습을 성공시키려는 작전의도를 가

지고 있었으며, 소탕전이 전개되기 이전에 자기 명령으로 충들을 저지하고자 했다.

결국 그 헝가리 장군은 괴로우나 단호한(?) 표정으로 “나 항복하겠소, 내 부하들에게 즉시 사격을 중지시키리다”라고 선언했다. 스코르제니는 그 장군과 악수하고 서로 연락장교들을 보내 이 사실을 교전중 또는 교전 직전의 부대에게 전달했다. 이로서 대형의 유혈사태는 예방되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스코르제니에게 두명의 헝가리 소령이 연락장교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 사이 다른 부대원들은 괴뢰수반을 찾았으나 아파트는 비어 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 6시가 되기 불과 수 분전에 탈출해 독일 히틀러 돌격대의 페퍼-빌덴부룩(General Pfeffer-Wildenbruch) 장군에게로 가서 보호받고 있었다. 그런데 스코르제니의 특공대가 직접 괴뢰수반 홀시 제독을 체포하지 못한 것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작전의 근본 목적은 어디까지나 헝가리 정부자체를 점령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사전에 지명된 각 부대는 거의 동시에 헝가리 정부 각 부서를 점령하여 접수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작전은 반시간만에 끝나고 특공대로서는 안도의 침묵이, 헝가리 정부로서는 앞날에 대한 불안의 침묵이 이 언덕에 찾아들었다. 이 사태를 직접 접하지 않았던 인접 병영(兵營)들은 여전히 새벽잠을 계속했다. 교전쌍방의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서 특공대는 4명의 전사와 12명의 부상자가 전부였고, 헝가리 경비대는 3명의 전사, 15명의 부상 정도였다.

이와 같은 스코르제니의 기습공격 아이디어와 그 실행력은 다시 한번 독일군 최고사령부를 감탄케 한 바 있었다. 애당초 독일군 사령부는 이 당시의 작전환경으로 보아 공정부대와 글라이더부대 등에 의한 대규모 작전과 그에 따른 상당한 희생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었던 것이다.

스코르제니 특공대는 이어서 이 헝가리 정부 중앙청이 자리한 성채와 각 부서에 대한 경계에 임하게 됨으로서 그들의 작전성공을 다시 실감하게 되

였거니와 그 후 전방의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에 그들은 스스로도 만족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헝가리지역 독일군이 공황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기쁘고 보람있게 해 주었다. 다음날 이들은 금번 작전에서 희생된 헝가리 경비요원과 독일특공대원들에 대해 공동 장례식을 거행하였는데, 스코르제니 특공대는 새로 구성된 헝가리정권으로부터 감동적인 양국간의 우호를 다짐하는 인사를 받기도 했다.

곧이어 히틀러의 명에 의하여 스코르제니 특공대의 엄호하에 헝가리의 홀시 제독(the Regent of Hungarian)은 독일 상(上) 바바리언 지역에 있는 힐시베르그 성(the Castle of Hirschberg)으로 이송되어 당분간 외형상 히틀러의 빈객으로서, 그러나 실제로는 헝가리 신 정권에 대한 인질로 있게 되었다.²¹⁾

한편 소련군은 1944년 9월말 유고와 헝가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10월 20일 유고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점령하고 트란실바니아 산맥을 넘어 다뉴브 계곡으로 진출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헝가리와의 단독평화조약이 일단 무산됨으로서 11월 부다페스트 근방에 도달할 무렵부터 소련군의 진격속도는 차츰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스코르제니 특공대가 이룩한 성공적 전략작전의 결과였던 것이다. 즉 헝가리 방면 동맹군의 저항이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대세는 어찌할 수 없었다. 12월 30일 헝가리 신 정권 또한 독일을 배반하여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²²⁾

21) Otto Skorzeny, 『Skorzeny's Secret Missions』, 19절(193-218쪽)을 참고.

22) 정명하 외 5인, 『세계전쟁사』, 395쪽.

4. 스킨제니(Skorzeny) 특공대의 군사전략적 운용

스킨제니 특공대는 국가안보전략적 운용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적으로도 운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의 마지막 대반격작전이었던 발진전투의 돌파를 위한 선도부대로 운용된 것이다.

헝가리 배신정부의 접수에 성공한 스킨제니는 1944년 10월 20일경, 히틀러의 초대를 받고 개입 작전경과를 보고한 후 그 공로로 독일군 최고훈격인 황금십자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주요 비밀임무를 부여받았다.

히틀러는 설명하기를 “이 겨울 12월(1944년)에 독일군은 독일의 운명을 결정할 대 반격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동안 5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해 온 결과 결론으로 2가지 프로젝트로 압축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독일군이 1940년에 프랑스로 공격해가던 그 축선을 이번에는 반격해 나가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대공세작전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부분의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귀관과 귀 부대를 지명했다. 선도부대로서 귀 부대는 리에즈(Liege)와 나무르(Namur)어간의 뮈즈(Meuse)강 위의 한 두개 교량을 선점하는 것이다. 이 임무를 위해 모두는 영국군과 미군복장으로 위장하라. 그리고 얼마전 전선에서는 연합군의 코만도부대가 독일군복장으로 위장하여 전선후방으로 침투 우리 독일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힌 바 있다. 따라서 귀 부대가 소규모 다수부대의 특공부대가 되어서 적 후방으로 침투 적 부대에 가짜명령을 하달한다던가, 교신을 방해한다던가, 또 지리적 방향과 피아구분 불가로 연합군을 혼란시켜 주기를 바란다. 준비는 12월 1일 이전으로 완료하도록 하고 상세한 것은 요들 장군(주 : 독일군 최후의 총참모장)과 논의하라”는 것이었다.

며칠 뒤 정식 명령서를 수령하였는데, 그 부록에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장교와 하사관 그리고 병들은 자원하여 스코르제니 중령의 특공부대편성에 임하라”는 것이 있었다. 즉 금번 작전부대는 연합군으로 위장하는 독일군 코만도부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명령서는 지나치게 공개적이었다. 작전이전에 적에게 탐지될 수 있었다.²³⁾

그래서 스코르제니는 고위사령부에 작전취소를 건의하였으나, 히틀러의 동서인 헤게라인에 의해 정중히 거부되었다. 그리고 한 친구는 “만일 적군 복장으로 위장한 소수인력이 적 지역에서 활동하다 체포되면 스파이로 취급되기 때문에 적군 복장 속에 독일군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것이 부하들의 만일을 위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래서 스코르제니도 의당히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1944년 12월 16일 오전 5시 35분에 유럽의 서부전선이었던 ‘아르덴네’ 정면에서 독일군은 마지막으로 과감한 반격작전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이후 파리를 해방하고 순조롭게 전과를 확대하여 독일 국경선에 도달하였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수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히틀러 최후의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덴네 반격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히틀러가 마치 호랑이자식같이 잘 보존해 두었던 독일군 제6기갑군을 이 전선에 투입해서 연합군을 일거에 바다로 밀어 떨어뜨릴 심산으로 작전을 계획했다.

이 전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럽 전사 또는 미군의 유명한 기갑장군인 패튼장군 전기, 그 영화 ‘패튼 대 기갑군단’에도 나와있음을 참고 바란다. 다만 여기에서는 히틀러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오토 스코르제니 중령(당시)’의 특공부대에 관한 전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히틀러는 무쇠의 사나이 스코르제니의 특공부대를 또 다시 이 작전에 특별히 활동하게 했다. 스코르제니는 이미 이탈리아의 못솔리니를 구출하는데 성공하여 전락특공부대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이 작전을 위한 특공부대

23) 실제로 이 명령서는 발간 1주일만에 연합군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는 약 2천 여명으로 구성된 기갑여단으로 그의 임무는 연합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독일군의 선봉부대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부대는 미군의 차량과 무기로 장비하고 요원들은 미군복장으로 위장하고 미군용어를 구사할 줄 아는 군인 다수를 포함시켜 편성했다.

반격전이 개시되자 ‘그라이프 작전(OP. Grife)’이라 명명된 이 부대의 활약이 시작되었으며, 신출귀몰하고 아연하지 않을 수 없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불의의 반격에 의해 대혼란 속에서 후퇴 중에 있는 미군부대내 소규모팀으로 분산 잠입하여 연합군의 통신선을 절단한다던가, 미군 헌병으로 가장하여 사거리 교통신호병으로 또는 차량 간보이로 퇴각하는 적부대를 오도하거나, 길가의 도로표지판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저항하는 부대에게는 상급부대 지시라고 기만하여 퇴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렇게 신출귀몰하면서 연합군 전선을 혼란시킨 특공부대는 전진하여 뒤따르는 정규 독일군의 반격선두부대를 전선 깊숙이 인도했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반격 초기의 몇 가지 코만도 전투사례만 소개하기로 한다.

첫번째 사례는 공격개시 첫날, 한 특공분견대는 간신히 전선을 돌파하여 멀리 뮤즈(Meuse)강 지근거리에 위치한 휴이(Huy)까지 침투하는데 성공하여 그 지방 요지의 십자로에 산개하여 적(연합군) 동향을 감시했다. 그런데 그 팀장은 유창한 영어 사용자로 동네 민간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미군 장갑연대가 도로를 따라 접근해 왔다. 그리고 연대장이 특공대원에게 길을 물어왔다. 그러자 팀장이 나가서 허황한 정보 즉 앞길은 모두 장애물로 인해 차단되었고, 우리 부대도 우회로를 사용해 왔노라고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 미군 지휘관은 적시에 정보를 얻게 되어 고맙다고 하면서 팀장이 지시한 방향으로 부대를 지휘해 갔다. 또한 이 팀은 복귀하면서 상당수의 통신선을 절단하고 또 각종 도로 표지판을 반대방향으로 이동시켜 놓기도 했다. 24시간 후 부대에 복귀하였는데 그들은 전선의 연합군이 심히 혼란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고해 주었다.

두번째 사례는 다른 한 분견 특공팀이 역시 전선을 초월 침투하여 뮤즈 강에 도달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교량은 경계병 없이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귀대 중에 전선으로 향하는 주 도로상에 미군의 지뢰매설표지를 상당히 많이 표시해 두었다. 후에 확인된 바 연합군의 증원부대가 이 도로를 피하여 수 시간을 헤매면서 크게 우회해 갔다고 했다.

또 세 번째 사례로 이 코만도 팀은 연합군의 탄약저장고를 발견하고 밤까지 대기했다가 이들을 폭파시켜 날려버렸다. 역시 복귀하면서 이 팀도 주도로상에 연하여 설치된 간선 통신망을 세 지점에서 크게 절단했다.

좀더 특별한 경우를 보면, 또 한 팀이 12월 16일 전선을 무아지경으로 초월 침투해 정신을 차려보니, 미군 2개 중대 진지정면이었다. 그들은 바야흐로 참호굴착, 화기진지 구축, 바리케이드 설치 등 작업 중이었다. 그들은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모습이었으므로 미군 장교는 그들에게 “지금 전선의 상황은 어떠한?”고 물어 왔다. 역시 영어 잘하는 코만도 하사관(으로 위장한)은 서슴없이 말했다. “뭉쓸 독일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은 이미 이 선을 넘어서 이 부대 양편으로 지나갔요. 당신들도 이미 포위된 것과 마찬가지로요”라고 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미군 대위는 즉시 자기부대에 즉각 철수명령을 하달했다는 것이다. 이외도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으며 심지어는 스코르제니 자신이 본부중대와 함께 직접 적진 돌격도 감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작전기간 중 수 십개 팀의 스코르제니 대원들이 미군 지프차와 함께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그라이프 작전’의 전모가 드러나고 말았다. 그 결과 연합군 전선 후방에서는 미군 상호간 또는 미군과 위장 독일군 간에 기묘한 확인 문답이 오고갔다. ‘미키마우스의 애인이름은?’ 또는 ‘작년에 NBL(전 미국 프로야구시합)에서 우승팀은?’ 등 되는 대로의 질문과 대답이 서로를 웃기고 놀라게도 했다.

또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스코르제니와 닮은 얼굴의 그림들이 근처 마을 마다 현상금과 함께 수배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전 작전지역에는 “스코르

제니가 아이젠하워 연합군총사령관을 암살하려 한다”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했다.²⁴⁾

여하간에 ‘그라이프 작전’은 심리적으로도 연합군에게 충격과 큰 영향을 주었으며, 실제 작전면에서도 초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실질적 의미에서 대국을 전도시키지는 못했다. 아니 대국의 흐름이 오히려 이 ‘그라이프작전’에 영향을 미쳐 더 이상의 대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자연 조건인 기후기상도 ‘패튼장군과 그 부대 목사의 기도’에 따른 것(?)인지 모르지만 어찌하였던 양호하여 연합군의 화력 반격에 유리하게 되어주었다. 그리하여 독일군의 공세는 전지역에 걸쳐 기세가 갑자기 꺾임으로서 독일군의 마지막 큰 도박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5. 특공대의 전략적 운용 분석과 교훈

(1) 국가안보전략을 위해 전략특공대를 운용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전사에서 특공대 운용에 대해 분석 연구할 때 주로 군사전략적인 운용면에 치중하여 왔으나 외교안보전략면과 군사전략면이 어울려진 안보전략연구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위의 전례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4면의 적에 대한 공격과 방어 그리고 작전의 기습효과를 위해서 정상적인 군사작전 이외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용병술의 하나인 특공대의 전략(국가군사전략, 국가안보전략)적 운용이었다.

24) 특전사, 「특공전」, 149-50쪽.

한 예를, 들면 이미 위 전례에서 본 바와 같이, 1943년에 시실리로부터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한 연합군이 로마를 향해 노도와 같이 진격해 올라오자 이탈리아 국민과 왕실정부가 흔들리면서 못솔리니를 체포, 구금하였을 때 이탈리아 전선은 풍전등화였다. 그러나 히틀러의 판단과 용감한 스킨제니 특공대의 성공적인 전략적 운용으로 구출된 못솔리니의 재생 파쇼정권과 독일 동맹군이 전개한 후기 이탈리아전쟁은 히틀러가 바라던 대로 연합군을 유럽 남부전선에서 견제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특공대의 전략적 운용은 히틀러에 의해서 그후에도 계속 실시되었다. 1944년 가을 유럽 동부전선이 붕괴되면서 소위 제3국의 동남관문인 헝가리조차 소련에게 대문의 빗장을 열어주려 했을 때 히틀러는 다시 한번 비장의 스킨제니 특공대를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헝가리 친독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비록 몇 개월간이라 할지라도 전선을 현상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몇백만의 독일 군사력을 본토로 철수시킬 수 있었고 또 전체 유럽전선을 일단 정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전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공대의 안보전략적 운용은 당시 국가안보전략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는 특공대의 군사전략적 운용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이 분야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2) 전략 특공대의 작전 성패는 당시의 전략환경이 좌우한다.

히틀러가 전쟁 초기에는 전쟁명분을 얻기 위함과 기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말기에는 후퇴국면을 축소시키고 최후의 국면회생(局面回生)을 위해서 이 특공대의 전략적 운용을 시도했다. 그래서 그는 특공대를 전략적으로 운용할 때마다 그 모든 작전행위보다 최우선을 두었으며 또한 그 결과를 그만큼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든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성공한 작전도 있었지만 실패한 작전도 있었

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작전이 작전 그 자체의 실패로 초래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시 무엇보다 먼저 작전환경이 고루 갖추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이 경우에서도 도출해 낼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보면 특히 뭇솔리니의 구출작전은 성공했다. 전장으로부터 그리고 정치세력권과도 고립된 지리적 환경과, 당시 이탈리아군 지휘부 및 상급장교들의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분위기, 또 스킨제니 특공대에 대한 독일참모본부 및 돌격대 사령부의 전적이기도 완벽한 몰심양면의 지원 등이 있어 가능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전 후반에 들어가서 독일군의 대반격에 선도를 맡았던 스킨제니의 ‘그라이프 작전’은 크게 성공했다고 기록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선 독일군의 반격자체가 이미 시기를 상실하여 연합군의 공세를 저지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시작됨으로 인하여 작전 초기 며칠간의 적진 돌파의 눈부신 활동 성공시점이 지나자 독일군의 공격대세 그 자체가 힘을 잃고 돈좌되고 말았다. 따라서 그 물결을 선도하려던 특공대의 적진 돌파작전도 본의 아닌 인적 물적 과손실 등 결과적으로 히틀러 독재자의 야심과 비전문적인 작전지휘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스킨제니 특공대의 특공작전이 전쟁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 작전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쟁양상의 큰 흐름에 작전 성공이 반동작용을 일으키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 후진들에게 일깨워 주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공대의 전략적 운용은 그 운용 결심권자들이 상황과 국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있는 연후에 결정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3) 준비된 특공대가 작전성공에 유리하다.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하기 이전에 치밀한 전략구상과 함께 철저한 작전준비도 병행했다. 그리하여 사전에 편성 준비해 두었던 전략 특

공대를 적시적소에 운용함으로써 국경지대 방송국 위장 습격과 네덜란드의 조기 항복작전에서도 성공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히틀러는 ‘브란덴부르크’라는 이름의 전략특공대를 히틀러 돌격대에 일찍부터 편성하여 준비해 두었다. 그래서 필요한 작전을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특공대에 의하여 실행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4) 철저한 준비가 작전성공의 열쇠다.

위에서 본 내용정도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더욱이 스크르제니 자신이 쓴 자서전에 의하면 “작전 성공을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였나”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준비면에서 특히 부대편성과 무기장비준비, 작전지역 환경과 조건에 대한 철저한 현지정찰과 검토, 그리고 철저한 훈련과 군기 확립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못솔리니 구출작전에서 지휘관인 스크르제니는 히틀러의 명령을 직접 수령하고 국가 지휘계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동시에 그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 정찰에 정찰을 거듭하여 상식과 탁상계획 아닌 현지실정에 입각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소수정예의 결사 특공대를 편성하고 수차의 실지 모험으로 철저한 연습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작전을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가 있었다.

(5) 절대책임완수의 정신력이 필승의 원동력이다.

특히 스크르제니는 히틀러 총통으로부터 직접명령을 수령하고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으로 사기는 최상의 수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인의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조국과 군에 대한 충성심이 바로 부하 특공대원들과 함께 부여된 전략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절대책임완수의 정신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못솔리니의 구출작전에서 히틀러의 호소식 명령을 충심으로 수용했다. 그리하여 작전이 개시된 직후 엄호대의 행방불명과 의외로 그란 샷소 현지의 죽음의 지형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이나 주저함 없이 그대로 작전을 계속하였고 그리고 성공했다.

더욱이 전쟁말기 발지전투의 그라이프 작전에서는 처음부터 연합군의 무기장비가 부족하였고, 준비시간도 여유가 없었으며, 상황도 최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특공대는 오로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출전하여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전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6. 결 언

독일의 군사철학자 클라우제비쯔는 말하기를 군사는 정치에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정치와 군사는 주종관계보다 평면 상호보완 관계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지난 월남전쟁에서 당시 미군이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한 것은 바로 군사력의 정치 추종관계 때문이었다고 분석되고 있다.²⁵⁾

21세기 초두부터 시작되고 있는 아프간전쟁과 제2차 이라크전쟁에서는 대부분의 군사작전이 직접적인 국가안보전략적 측면에서 운용되고 있음을 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특수전과 특공전이 전장의 각광을 받는 경우가 흔하게 되었다. 이는 곧 이들 군사작전을 흔하게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60년대 초 케네디의 ‘유연대응전략’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군사와 정치의 균형’을 군사력의 전략적 운용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만일에 제2의 6·25전쟁이 북에 의해 재발한다면 거기에는 반듯

25) 민평식 역, 「미국의 월남전 전략」, 병학사, 1983. 12, 3-4쪽.

이 초전에 북한(北韓)의 특공대에 의하여 야기되는 서울지역(수도권 포함) 대공황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침략군은 전쟁개시와 동시에 독일군이 폴란드 침공에서 실시하였던 전격전과 유사한 전면전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전면전쟁 즉 정규작전과 함께 갖가지의 특수전과 특공전이 더욱 가증스럽게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전개시킬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첫날의 네덜란드 상황과 유사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1968년도에 있었던 소위 '김신조 식 특공대'에 의한 청와대 사전 공격이 이에 겹쳐서 시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초전 3일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결코 그런 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보장하려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위의 전사에서 살펴 보았듯이 특공대의 전략적 운용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실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격에 나서는 한국군에 의하여 적의 수도 평양과 그 외 지방중심도시 그리고 적으로부터 확대받거나 소외된 오지에 대한 한국군 특공대의 전략적 운용 또한 고려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부터라도 우리 한국군 특공대의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운용에 대해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이론적 연구발전은 물론 그러한 특공대를 평상시부터 편성 보유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 '스코르제니 특공대의 전략적 운용'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비록 간단하나마 이 한편의 글이 그러한 뜻에 도움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원고투고일 : 2003. 7. 9, 심사완료일 : 2003. 8. 4)

주제어 : 특공작전, 스코르제니, 전략적 운용, 괴뢰정권, 독일군

<ABSTRACT>

The Strategic Use of the Germany Skorzeny's Kommando during WWII

Moon, Young-Il

Special Operations is one kind of conventional warfare. In special operations, soldiers who are highly trained are sent in to the front lines or into the enemy area to perform difficult military tasks. Special operations is often also called Ranger or K-Commando Operations. However, special operations is distinguished from the term Special Warfare which has often been used in the recent wars in Afghanistan and Iraq.

Special Operations is not only used as a military tactical operation but is also used strategically. Especially, at the time of World War II, both the allied forces and the Union used special operations as much as they could.

Of these uses, the strategic use of Skorzeny's Kommando employed by the German army could be called the cream of the crop. As the summer of 1943 came to an end, there was a turn of events in the war. The German side retreated from all of the front lines. However, there were several situations that the Germans judged critical. First, the 'Vichy' political power of France located at the western front line would be overthrown by resisting political parties. Secondly, the Hungarian government at the eastern front would make an Individual Peace Agreement with U. S. S. R. Thirdly, the Mussolini Administration located on the southern front would be overthrown. Lastly, the Individual Peace Agreement with the Allies had to be concluded. Therefore, the idea that Hitler of Germany came up with was

the strategic use of Skorzeny's kommando.

Consequently, although there was a short-term success, it was not enough to turn the tide of war. However, this strategic use was put down as an important event in world history and many lessons can be learned from the strategic use. Soldiers, especially Korean soldiers, have to regularly study war history as if they are in combat. Therefore I believe that the strategic use of Skorzeny's kommando Germany will provide many valuable lessons to the soldiers for preparing for future wars i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world.

Key Words : Kommando, Skorzeny, Special operations, Vichy, German army

K C I